

광주 군공항 이전 새국면...입장차 여전

‘시·도·무안군’ 군공항 이전 3자 대화 광주시 수용

광주시가 ‘전남도·무안군과 즉각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도 간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전남도가 제안한 ‘광주시·전남도·무안군 간 군공항 이전 3자 대화’를 즉각 수용했다.

광주시가 지난 15일 ‘광주시·전남도·무안군·함평군’ 간 4자 대화를 제안하자, 전남도가 함평군을 제외한 ‘광주시·전남도·무안군’ 간 3자 대화를 역제안했으며, 광주시가 이를 다시 수용한 것이다.

무안과 함평은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이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양자 간·3자 간·다자 간 대화 등 어떤 형식의 대화 테이블에도 즉각 입찰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전남도가 책임지고 이달 내 3자간 대화를 위한 논의의 테이블을 마련해 달라는 뜻도 밝혔다.

/김도기 기자

광주시의 이 같은 의사표시에 전남도는 이날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남도가 앞서와 같은 광주시의 입장을 모두 수용한다고 해도 또다른 대화 주체인 무안군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3자 간 대화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우선 대화와 타협으로 무안군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전남도는 전남 무안군의 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광주시도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인다면 무안군과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라며 공항 이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무안군 민 설득을 위한 노력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광주시는 무안군민을 설득하기 위해 함평에서 진행했던 것과 동일한 주민설명회·공청회·광고 등을 추진할 준비도 돼 있다며 이 같은 행사를 무안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책임지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정부 전산망 원활...모든 서비스 정상화”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흘만...“국민 불편 없도록”

행정안전부는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흘째인 19일 “현재 모든 서비스가 재개돼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 불편함이 전혀 없고, 이를 간의 현장점검 결과 시도 ‘새울’ 행정시스템도 장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산망 마비 하루 뒤인 지난 18일 오전 9시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 서비스를 우선 재개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전산망인 새울 행정

시스템을 재가동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원실 및 주민센터 등에서 현장 점검했다.

고 차관은 “재개된 서비스가 보다 안정화 되도록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관리하겠다”며 “월요일인 내일에는 국민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오전 8시40분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울’에서 오류가 발생해 주민센터 등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됐다.

/김도기 기자

광주 이스포츠 중심지 두각	2면
출판기념회 붓물	3면
줄줄이 낮춘 경제성장률	4면



무등산 하얗게 덮은 첫 눈

첫 눈이 내린 지난 18일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산 전체가 하얗게 눈이 덮여 장관을 이루고 있다. 초겨울 날씨에도 막바지 가을 정취를 느끼려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잇따랐다.

/이영욱 기자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반드시 해낸다

광주시-민주당 국비확보 등 예산회의 “역량 집중”

시, 대우위니아·인공지능·미래차 등 현안 10건 건의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위한 내년 국비 확보 및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광주시와 민주당은 18일 광주시청에서 예산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민생 최우선’ 의지를 다짐과 동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국회 예산안 심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데다 광주 출신의 예결소위 의원이 없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주말임에도 긴급히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시청 비즈니스룸 가진 예

산정책간담회를 통해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약속했다. 또 내년도 인공지능(AI) 조성사업비 등 국비 확보, 대우위니아그룹 사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지원 촉구 등에 손을 맞잡기로 했다.

예산정책간담회는광주에서 강기정 시장,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민주당 중앙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윤영덕·송갑석·조오섭·이형석·이용빈·민형배 지역구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시와 민주당은 지역의 주요 현안

과 2024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당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는 먼저 지역의 최대 이슈인 대우위니아 사태 해결을 위한 금융지원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대우위니아그룹 사태로 인한 여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50억원의 특별보증, 업체당 최대 1억원 지원을 위한 5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긴급 금융·재정 지원을 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추가적인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적자금으로 긴급생산자금 200억원 투입, 협력업체에 대한 특별 보증 확대(특별출연 100억원)와 고용위기지역의 요건 완화 및 신속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광주시와 민주당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에도 뜻을 모으기로 했다.

특별법 연내 제정을 통해 영호남을 아우르는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첫 성과를 만들어 내기로 했다. 이 외에도 5·18정신 등 민주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추진에도 동의했다.

강기정 시장은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연내 제정으로 영호남의 교류와 상생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특히 인공지능, 미래차 산업은 핵심적인 미래 먹거리인 만큼 국회에서 예산 확보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등 내·외국에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AI), 지역화폐 예산 등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장성군
Jangseong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숨결이 살아 있는

장성 필암서원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도 절로 물도 절로하니
산수간나도 절로
아마도 절로 삼긴 인생이라
절로절로 늙사오리

— 김인후 선생의 '자연가(自然歌)' —